

# 주천-운봉 구간

## ■ 코스 지도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며 운봉고원을 넘나드는 길



##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주천-운봉 구간소개	
2	외평마을	섬진강의 수계 / 교통의 요지	민속자료
3	내송마을	마을유래 / 두꺼비바위	민속자료
4	개미정지	의병장 조경남 / 서어나무	생태 / 설화
5	구룡치	삶의 길	민속자료
6	사무락다무락	염원의 공간	민속자료
7	회덕마을과 셋집	길과 모데기 이야기	민속자료
8	노치마을 1	백두대간과 당산제	민속자료
9	노치마을 2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마을
10	가장마을	마을 이야기	민속자료
11	행정마을	도깨비혈 이야기	설화
12	서어나무 숲	풍수지리/비보림	생태

## 1. 구간소개

주천과 운봉, 운봉과 주천을 잇는 길은 옛사람들의 삶의 길이다. 지리산 북쪽자락에 걸친 이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남원장과 운봉장을 오가던 옛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된다. 그들의 고됐지만 소박하고 구수한 이야기들을 길에서 들을 수 있다.

주천과 운봉사이의 크고 작은 6개 마을을 거치며 우리는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구룡치를 넘어가는 소나무 숲길을 걷기도 하고, 람천을 따라 뻗어있는 운봉의 너른 들판을 걷기도 한다. 잘 닦여진 아스팔트를 걷다가도 어느새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만난다. 삶의 굴곡 같은 이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난다.

천천히 돌레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 2. 외평마을

원이 있던 거리. 이곳 주천 치안센터 부근을 '원터거리'라고도 부른다. '원'이란 공적인 일로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들이 묵었던 공공여관인데, 조선시대까지 이곳에 '원천원'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소읍의 풍경이지만, 옛날엔 구례와 서울을 오가던 길손들로 분주했던 거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천원이 아니고 원천원이었을까. 행정구역 개편 이전엔 이곳 주천을 원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원천, 굳이 번역하자면 '근원이 되는 시내' 정도 될까. 저기 보이는 지리산 골골의 물들이 모여 이곳을 거쳐 섬진강으로 흐르니, 원천이라고 불릴만 하다.

그래서인지, 원천이라는 말에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진다. 원조라고 커다랗게 간판을 내건 도시의 맛집 같다고 하면 너무 세속적인 비유일까. 하지만 웅장하게 서있는 지리산 자락이 품은 땅이기에 그 자부심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둘레길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지리산의 따듯한 품속을 걷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걸으면서도 쉬고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낀다.

길이 모여 쉬었다 가는 곳. 그리고 물이 모여 강의 시원함을 이루는 곳. 이곳 원터거리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다. 땅과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걸어가라고. 급할 것 하나 없다고

### 3. 내송마을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 마을 앞으로 뚫려있는 4차선의 넓은 길과 마을에서 구룡치로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산길. 4차선 도로는 옛날 한양으로 가는 높은 양반들의 길이었고, 구룡치를 넘어가는 산길은 산촌 사람들이 남원장을 오고가던 서민들의 길이였다. 양반의 길과 서민의 길. 넓은 평지의 길과 좁고 가파른 산길. 둘레길은 양반의 길이 아닌, 서민의 길로 이어져있다.

이 길을 걷고 있자니 몇몇 풍경이 떠오른다. 유난히도 빨리 지는 산촌의 해를 원망하며 종종 걸음을 쳤을 장돌뱅이의 뒷모습. 혹은, 목을 빼고 기다릴 아이들 생각에 이고 진 짐 무거운 줄 모르고 한달음에 산길을 내달리는 시골 농부의 모습 같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엔 땀 냄새가 흠뻑 배어있다.

둘레길을 살짝 벗어나 내송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범상치 않은 커다란 바위 하나가 길 한가운데 서있다. 이걸 뭘까? 왜 이런 커다란 바위가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거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을 것 같다. 때마침 지나가시는 마을 어르신 한 분께 이 바위에 대해 여쭙어 본다.

*“여 틀림없이 두꺼비거든, 보면. 형국이 두꺼비 형국이며. 이거 새마을 사업하면서 길 확장하면서 동네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두꺼비 바위에 대한 전설이 있나요?”*

*“그런 것은 통 모르고, 그저 어른들이 두꺼비 바위다, 동네 생길 때부터 있었노라, 이렇게만 전해오지.”*

*“저게 있으면 부자가 되고 마을이 골고루 잘살고...”*

*“물론 그렇겠지. 그런 상징 하에서 부락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지. 하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요. 저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크레인으로 들어내자 그러잖디 옛날부터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걸 손댈 수가 없는 거지”*

낮선 방문객의 갑작스런 질문에 어르신은 가던 길을 잊은 채 성실하게 답해주셨다. 도시에 사는 찾기 힘든 삶의 여유가 포근하다.

두꺼비 바위였구나. 바위를 조심스레 쓰다듬어본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점점 농촌의 전통까지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기에, 길을 막고 서있는 이 두꺼비 바위가 새롭게 느껴진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바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야말로, 개발과 속도의 논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그 소박한 여유가 부럽게 느껴진다.

## 4. 개미정지

허리 굽은 시골 할머니처럼 오래된 서어나무 몇 그루가 이곳을 휘감고 있다. 벤치 대신 커다란 바위 위에 걸터앉는다. 움푹 파인 나무의 등치가 안타까워 쓰다듬어본다. 할머니의 손등처럼 까칠하지만 따뜻하다. 자연이 만들어놓은 쉼터여서 그런지 아늑하고 편안하다.

지금은 돌레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만, 옛날엔 산촌 사람들의 고된 다리를 쉬게 했던 쉼터였을 것이다. 장터에 팔 물건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던 사람들은 산길을 다 내려왔다는 안도감으로 이곳에서 숨을 골랐을 것이고, 이제 막 산길로 접어든 이들은 윗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며 이곳에서 힘을 내었을 것이다.

자연이 빚은 옛사람들의 쉼터인 개미정지. 이름이 참 특이하다. 정지란 옛 말로 쉼터를 뜻하는데, 이곳을 개미정지라 부르는 유래가 재미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곳 내송마을 출신의 조선시대 의병장 조경남 장군이다. 특히 장군은 <난중잡록>의 저자로도 유명한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상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곳 개미정지에 조경남 장군의 일화가 전해온다.

임진왜란이 치열했던 어느 날이었다. 조경남 장군은 오랜 전투로 피곤했던지, 산 중턱에서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자 꿈속에서 개미떼가 나타나 장군의 귀를 물어뜯었다. 장군이 놀라서 깨어보니 왜군들이 이곳까지 밀고 들어왔다고 한다. 결국 개미떼의 도움으로 장군은 이에 대비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곳을 개미정지라 불렀다고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조경남 장군을 깨웠던 개미떼는 어쩌면 묵묵히 일만 해온 이 마을의 서민들이 아니었을까. 왜적의 침입에 농기구를 들고 당당히 맞섰던 이름 없는 의병들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을, 그리고 일제시대를 견디어 왔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민초들의 역사가 이곳, 개미정지에 숨어있다.

## 5. 구룡치

열심히 오르막을 걸은 끝에 고개에 다다랐다. 쉽지만은 않은 산길이지만, 숲의 향이 상쾌하다. 땀을 닦으며 깊게 심호흡을 해본다. 소나무의 향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다.

지리산 산줄기 너머 달궁마을 사람들은 남원장을 가기 위해 이곳 구룡치를 넘어야 했다. 그렇게 왔다 갔다 2박 3일이 걸렸기에 사흘장을 본다고도 했다. 특히 남원장에 소가 유명했다는 데, 만약 큰맘 먹고 소를 사올 때면, 소를 끌고 이 고개를 넘었을 것이다. 뒷걸음질 치는 소의 고삐를 끌고 힘겹게 이 고개를 넘었을 옛날 농부들을 상상하니 먼저 웃음이 난다. 하지만 2박 3일 고단한 길의 여정이 뒤이어 떠올라 곧 마음이 짠해진다.

왜 구룡치일까?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구룡계곡을 넘어가는 고개여서다.

이곳 구룡치에서 둘레길을 벗어나 내려가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리산 구룡계곡을 만난다. 지리산 만복대에서 시작된 물길이 구룡폭포와 교룡담 같은 아홉 개의 절경을 이루며 흘러내리는데 지리산에서 가장 아름답다 해서 방장제일동천이라고도 불린다.

기암괴석과 원시림이 주는 지리산의 황홀경도 좋지만, 지금은 옛사람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 아쉬움을 대신해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다. 멀리서나마 구룡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구룡폭포 소리 대신, 어디선가 옛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거기엔 깊은 한숨소리도, 깔깔대는 웃음소리도, 두런두런 세상사는 이야기도 섞여있다. 계속 눈을 감고 옛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본다.

## 6. 사무락다무락

산길에서 만나는 오래된 돌무덤이 반갑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돌무덤. 투박하기에 아름답다. 돌무덤은 내게도 손짓한다. 그 손짓에 끌려 나도 정성스럽게 돌맹이 하나를 엮는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남원장을 오가던 옛사람들도 이곳에 돌을 엮으며 하루의 운을 기원했을 것이다. 이제는 돌레길을 걷는 사람들의 다양한 소망들이 쌓여간다.

사무락다무락, 입에서 퍼지는 소리가 좋다. 이 돌무덤을 사무락다무락이라 부른다. 원래는 사망다무락이었지만 운율에 맞춰 변형되어 사무락다무락이 되었다고 한다.

사망다무락. 사망은 소망을, 다무락은 여기 사투리로 담벼락을 뜻한다. 소망을 비는 담벼락.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쌓여있고, 앞으로도 계속 쌓여 올라갈 것이다.

나이든 소나무 한 그루가 조심스레 돌무덤을 굽어본다. 길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잘 들으려는 듯 아래로 휘어져 자라고 있다. 소박하게 쌓인 돌무덤속에 내가 남긴 소망이 반짝인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눈을 감고 기도해본다.

## 7. 회덕마을과 셋집

특이하게 생긴 집이 눈에 띈다. 초가집처럼 생겼지만 지붕이 굉장히 높다.

셋집이다. 역새로 지었다고 해서 셋집이라 부른다. 여기 산촌엔 벚짚보다 역새풀이 더 많기에 옛날엔 지붕을 역새로 이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원래 마을 전체가 저런 셋집이었지만, 전쟁 때 다 타버리고 이제 두 곳 밖에 안 남았다

앞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지리산 자락이 줄지어 서있다. 그 사이에 걸친 듯 서있는 셋집은 주위의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셋집은 그곳에서 자란 생명체처럼, 온전한 자연 그 자체로 느껴진다.

이곳 회덕마을의 원래 이름은 '모데기'였다고 한다. 길이 모이는 곳이란 뜻으로, 남원장을 보기 위해 운봉에서 오는 길과, 지리산 너머 달궁 쪽에서 오는 길이 모인다고 해서 '모데기'라 불렀다. 그래서 그런지, 회덕마을을 중심으로 돌레길도 확연히 달라진다. 주천에서 이곳까지의 길이 굽이굽이 산길인데 반해 이곳에서 운봉까지의 길은 마을과 마을 사이의 호젓한 뚝방 길이다.

무심하게 걷고 있으면 길은 모두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길은 모두 다르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강이 들판이 숲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건네는 길.

천천히 천천히 걷는 만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 8. 노치마을\_1

흥겨운 풍물 소리에 마을이 들썩인다. 때마침 당산제가 한창이다. 마을의 당산나무에 제를 올리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모든 게 새롭다. 제사라기보다는 흥겨운 축제에 가까워 보인다. 마을 앞에 서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주위에서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이 어깨춤을 추며 풍악소리에 몸을 맡긴다. 노치마을 당산제는 1년에 한 번, 정월 그믐에 열린다고 한다.

풍악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어본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제사 음식을 건넨다. 출출하던 차에 한 입 가득 넣는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이다.

노치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마을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백두대간을 경계로 운봉읍과 주천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마을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은 두 개였으니, 한 마을의 읍장이 두 명이었고 선거도 따로 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백두대간은 물길을 가르며 흐르는 분수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 마을로 내리는 빗물이 한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으로, 다른 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마을의 중앙을 경계로 물길의 호적이 바뀌니, 사람의 호적도 달라졌던 거다. 결국 사람의 호적을 물길의 호적과 함께 한 셈이다. 자연의 순리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옛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마을회관 앞의 지도를 보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마을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된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쇠말뚝을 박거나 임의로 길을 내어 지리산의 정기를 끊었던 흔적이 이곳에서는 돌로 만든 거대한 잠금 장치로 되어 남아 있었다.

그만큼 지리산의 정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당산제는 의미가 깊다.

한반도의 정기가 흐르는 백두대간, 그 위에서 살아 숨 쉬는 마을의 전통을 함께한다. 노치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임에 틀림없다.

## 9. 노치마을\_2

둘레길을 걷다보면 마을의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먼저 인사를 건네면 어르신들은 하나 같이 따뜻하게 웃어주신다.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가끔 무언가를 드시고 계실 땐 먼저 음식을 권하기도 하신다.

노치마을에서 그런 어머님 한 분을 만났다. 혼자 있는 내게 먼저 말을 건네 오셨고, 차 한 잔 하고 가라며 손수 집에 초대하기까지 하셨다.

*“혼자 온 사람들은 다 사연들이 있다. 딱 눈을 보면 알아.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걸 느껴. 사람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하고 느껴. 그러면 내가 먼저 털어놔. 내 얘기를 먼저 하면 눈물이 그렇그렁 하면서 울어. 울면서 자기 얘기를 싹 다해. 그러면 난 ‘아이구 어찌까나’ 하면서 다 듣고 있지. 다독이면 퍽퍽 울어. 남자고 여자고 퍽퍽 울어. 그러면 내가 안아줘. 등을 다독다독 해주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내게 스스럼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내미셨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이 직접 쓰신 글이라고 한다.

*“그냥 앉아서 심심해서 그냥 써본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와서 읽어보더니 엄마 왜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러더라고.”*

여기저기 맞춤법도 잘 안 맞는 어머님의 글을 천천히 읽어본다. 일기이면서, 동시에 시이기도 하다. 꺾꺾 눌러쓴 글자 속엔 당신의 삶이 그대로 배어있다.

“알타리 꼬들빼기 파김치 깻잎 깍두기 골고루 정성껏 담아 내 자식들 4남매 다 나눠주고 지금은 알맞게 숙성된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 상상하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쓰신 ‘김장’이라는 글을 몇 번이고 읽어본다. 따뜻함이 온 몸 가득 퍼져온다.

## 10. 가장마을

저수지가 시원하게 열려있다. 마을 근처에 이런 저수지가 있으니 농촌 마을에 이만한 밑천이 어디 있을까.

덕산저수지.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다는데 당시 이 저수지를 만들었던 읍장을 기리는 비석이 운봉의 서림공원에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저수지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저수지 옆 정자에 잠깐 앉아본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어디를 봐도 그림이 된다. 아마도 겹겹이 서있는 지리산의 능선이 배경이 되어 서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곳 덕산저수지에서도 지리산 서북능선이 잘 보인다. 오른쪽 끝으로 만복대가 아슬하게 보이고, 남원에서 가장 높은 고리봉 또한 한눈에 들어온다.

이 저수지를 기반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 가장마을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아름다울 가(佳)자에 단장할 장(粧)자를 써서 가장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단장할 장(粧)자 대신 터장 장(庄)자로 바꾸어서 쓴다고 한다. ‘아름답게 단장하는 선녀의 마을’이 ‘아름답게 농사짓는 움막터의 마을’로 바뀐 것이다.

어떤 연유에서 마을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추측을 해 볼 뿐이다. 어려운 시절,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에 넉넉히 먹고 살고픈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게 아닐까 싶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을 테니 말이다.

## 11. 행정마을

마을 앞 도로 건너편에 비석이 하나 있다. 이곳 행정마을에 처음으로 정착한 창녕조씨의 효자비라고 한다. 비문이 마모되어 정확한 설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0년은 넘어 보인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이 효자비에 얽힌 도깨비 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고 한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도깨비혈 이야기’라고 해도 되겠다. 이야기는 가문에서 이 효자비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만들어 비각을 세웠던 때부터 시작된다.

야낙 1: “아이구, 정정하시던 자네 아버님은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야낙 2: “말도 마. 며칠 전부터 쭉디쭉은 우리 아가씨도 앓아누웠다니까.”

야낙 1: “아이구. 자네도 몸조심해야겠구먼. 참, 그 얘기 들었어? 어제 요 뒷집에선 마루에 쌀바가지를 내놓았는데, 글썄 쌀알들이 벌레처럼 막 기어나갔다고 하잖아.”

야낙 2: “도깨비놀음이 따로 없지. 어제 난 저녁밥을 푸려고 솔뚜껍을 열려고 하는데, 글썄 솔뚜껍이 밑으로 쑥 빠지지 뭐야. 이게 도대체 뭘 일인지.”

야낙 1: “굿이라도 한 판 해야지. 마을에 흉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근데 이게 효자비에 비각을 만들어 세우면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야낙 2: “글썄.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효자비에 세웠던 비각을 뜯어 불태웠고, 나중에 유명한 무당을 불러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무당이 효자비를 유심히 보며 하는 말이,

무당: “도깨비 혈이야. 여기 도깨비들이 왕래하는 혈이 있어. 이곳에 지붕을 얹고 집을 지으니, 당연히 도깨비들이 노하지. 노해.”

도깨비혈 이야기. 요즘엔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황당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이 비석의 동쪽으로는 절대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효자비를 유심히 보게 된다.

## 12. 서어나무숲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숲이 눈에 띈다.

숲이 내뿜는 녹색빛에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숲으로 향한다.

앞에 보이는 서어나무숲은 이곳 행정마을의 마을 숲이다.

마을 숲은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풍수지리적인 의미에서 비보림의 역할을 한다. 비보란 부족한 곳을 채우고 더한다는 의미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아픈 사람의 혈액에 침을 놓거나 땀을 뜨듯이,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곳에 절을 세우거나 숲을 조성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다.

지리산의 다른 마을 곳곳에서도 이 같은 비보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마을 숲을 비롯해 장승이나 솟대, 당산목 등은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비보의 형태가 민속신앙과 결합되어 민간에 뿌리내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마을과 마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삶의 터전을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이상적인 하나의 환경으로 만드는 것. 분명 도시에서의 개발과는 확연히 다르다.

행정마을의 서어나무 숲은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의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찌는 듯한 한 여름에도 숲속 기온이 늘 섭씨 1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에서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이 숲이 주는 청량감은 따라 올 수가 없다고 한다.

겨울철엔 마을로 부는 매서운 북풍을 막아주고 여름철엔 들일하는 주민들의 시원한 쉼터 역할을 해주는 서어나무 숲.

둘레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선물이다